

사냥 문화의 발달과 사냥학

장태현¹⁾ · 이찬용²⁾

The Development of Hunting Culture and The Hunting Science

Tae-Hyun Chang¹⁾ and Chan-Yong Lee²⁾

요 약

사냥 문화는 인류 문화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하며 사냥이 인류 문화의 원동력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80년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사냥 문화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냥 행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또한 야기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냥 문화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사냥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때 올바른 사냥 문화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ulture of hunting is the culture of mankind and the hunting is also the mainspring of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In our country the demand of hunting is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in 1980's. But we have no traditional hunting culture, so that the recent problem of hunting was caused and will be caused. So it is necessary that we have to establish the new culture of hunting and when we understand more exactly the concept of hunting, we can found the proper hunting culture.

Key words : hunting culture, concept of hunting

I. 서 론

사냥은 야생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인류의 문화를 이룩하게 한 원동력이었다(S. Sch-

wenk, 1991).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사냥 문화를 발전시키며 오늘날과 같은 건전한 사냥 풍토를 형성하였다. 그들의 사냥 문화는 사냥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단

1) 괴팅겐대학교 임과대학 : Universität Göttingen, Forstwissenschaftlicher Fachbereich

2)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삼림자원보호학과 : Dept. of Forest Resources Protection, College of Forest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그림 1. 무용총 수렵도(활을 사용하여 사냥하는 모습)

절됨이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사냥 예술품으로 무용총의 수렵도(고구려, 그림 1), 천산대렵도(고려, 공민왕), 매사냥 풍속화(조선 시대, 그림 2) 등이 있으며 고려 시대 때 매사냥을 주도한 응방(고려·조선 시대에 매의 사육과 사냥을 맡은 관청) 등을 사냥과 관련된 문화로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총기 소지의 금지로 사냥 문화를 이끌어 가는 전문 사냥꾼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해방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불법 사냥이 성행하였으며 60·70년대의 경제 제일주의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우리의 사냥 문화의 단절을 야기시켰으며 이와 같은 단절된 사냥 문화 속에서 인간과 야생 동물의 관계, 사냥과 야생 동물의 관계, 사냥꾼의 역할, 사냥 방법, 사냥 윤리, 사냥의 가치 등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없었다.

또한 최근의 경제 발전과 소득 증진으로 사냥을 단지 건강 또는 생활의 변화를 위한 여가활동으로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과 최, 1993, 표 1), 사냥 참여의 잠재수요 라고 할 수 있는 총기 등록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자연과

사냥, 1997, 그림 3). 그 결과,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냥 수요의 확산은 맥이 끊겼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냥 문화의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앞으로도 야기시킬 것이다. 그 문제점을 우리는 밀렵, 야생 동물의 감소, 야생 동물에 대한 학대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통한 소득 증대의 필요성 때문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여가 선용을 위한 장소로서 산림 이용의 증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연 휴양림의 설치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며, 수렵장의 설치도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경남개발연구원, 1994).

그러나 증가하는 사냥 수요의 사냥 욕구 충족과 다목적 산림 이용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수렵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 이전에 사냥의 올바른 인식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제한된 공간에, 사육된 동물을 풀어놓았을 때, 과연 그 동물을 야생 동물 즉 사냥 동물로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사육 후 방사된 사냥 동물이 사냥꾼의 사냥 행위로부터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피)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나 하는 문제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냥 문화의 정립을 통해 올바른 사냥 행위, 적절한 사냥 제도 등을 찾아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사냥학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서양의 사냥 문화를 고찰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냥에 대한 제 문제점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림 2. 매사냥 (조선 후기의 풍속도)

II. 사냥 문화의 발달 과정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라는 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을 말한다(이 희승, 1996). 다시 말해 동물과 뚜렷이 구별되는 인간만이 갖는 모든 활동의 소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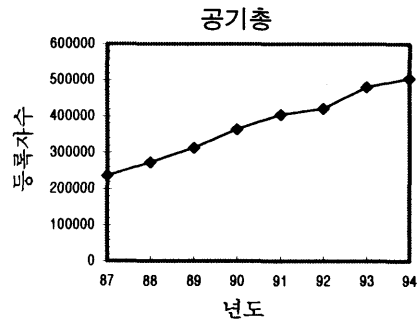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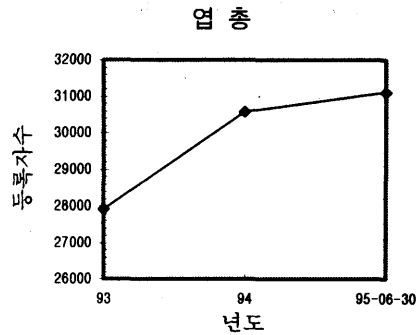


그림 3. 총포 소지 허가 현황(자연과 사냥, 1997)

만약 우리가 사냥을 인간 고유의 활동으로서 이해할 때 - 맹금류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과는 구별하여 - 인간의 사냥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냥 도구로서는 창(그림 4)이나 활 등의 무기 또는 함정 그리고 그 밖의 덫(그림 5) 등의 포획용 시설물 등이 있다. 그러나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동물이 사용하는 돌이나 나무 막대기와 같은 것은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구의 특징은 자연 상태의 사물 즉 돌, 동물의 뼈, 나무 막대기 등을 의도한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도한 대로 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미래 지향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다. 또한 인간의 이런 행위의 의도는 어떤 일을 변화된 사물(도구)로 처리하거나 보다 개선된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연 상태의 사물은 도구가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보조 수

표 1. 수업 참여 동기(김과 최, 1991)

동기항목	매우그렇다	-----	그저그렇다	-----	전혀그렇지않다	ALPH IF ITEM DELETED
	1	2	3	4	5	
1. 친목도모	19.9	13.9	35.8	6.0	24.4	.7296
2. 취미활동	70.4	9.9	16.0	1.9	1.9	.7341
3. 식용목적	3.0	2.0	30.8	14.4	49.8	.7345
4. 심신단련	78.8	9.9	8.6	0.5	2.3	.7405
5. 스트레스 해소	56.0	18.2	18.2	1.4	6.2	.7225
6. 사격술향상	15.5	14.5	36.5	9.5	24.0	.7128
7. 생태계 조절	9.7	4.1	30.3	10.3	45.6	.7133
8. 여가활동	14.6	13.1	32.3	8.6	31.3	.7199
9. 경제적 이득	1.1	1.1	6.1	11.1	80.8	.7401
10. 스틸과 흥분	30.7	22.8	27.2	5.4	13.9	.7198
11. 도시생활탈피	51.7	23.2	14.0	3.4	7.7	.7371
12. 주위의 권유	6.7	10.8	21.5	9.2	51.8	.7477
13. 일상생활의 변화	34.2	23.8	25.7	6.4	9.9	.7117
14. 자연학습	27.9	23.9	26.9	4.5	16.9	.7221
15. 야생동물관찰	8.6	12.2	30.5	12.2	36.5	.7084
17. 학문적연구	2.5	2.5	20.3	13.2	61.4	.7193

N = 236

단일 뿐이다. 따라서 문화라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면, 인류의 사냥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근본적으로 동물의 먹이사냥과는 구별된다.

사냥을 문화적 현상으로 볼 때 대략 3단계로 구분한다(S. Schwenk, 1991) : 1)채집과 사냥의 선사 시대, 2)정착 시대, 3)동물을 동류로서 보는 근세.

1. 채집과 사냥의 선사 시대

“최초의 인간은 사냥꾼이었다.” 또는 “사냥은 인류의 역, 만큼이나 오래되었다.”라는 문구는 그 진실성이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인류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술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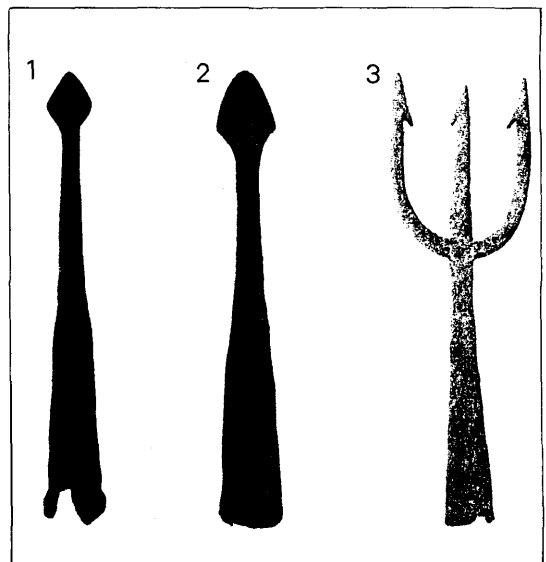


그림 4. 여러 가지 사냥창(1.선창 2.후창 3.세발창)

커다란 업적은 불과 도구의 발견이다. 부싯돌¹⁾을 부딪히므로써 의도하는 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불을 만들어 내고 보존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이 인류 문화의 커다란 변환점이 되었다.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나무나 동물의 뼈가 사용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의 목적이 처음부터 사냥에 의한 수확과 그 수확물의 이용을 증가시키는데 있었다. 기술의 발전은 사냥 도구의 개선을 통해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그 포획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과 뼈나 가죽과 같은 생활 재료의 공급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냥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사냥꾼이 그 문화의 주체였다.

그러나 사냥의 행위는 단지 경제와 기술의 기원만은 아니었다. 사냥이 사회 제도에 끼친 영향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사냥 도구나 그 당시의 환경 조건, 기후, 동물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최초의 사냥 방법 대부분은 무리 사냥이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행하는 사냥이 완전히 배제되어 질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행하여 졌다. 선사 시대의 사회는 공동 사회이며 공동 사냥으로 성공적인 사냥을 위한 과정에서, 분명한 역할 분담으로 사회 계급이 형성되게 되었다. 사냥할 때 분명한 역할 분담 없이 성공적인 사냥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며 사냥의 성공 없이는 거의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어떤 권리나 법의 근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그 당시의 사냥권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그 당시의 사냥권을 "자유로운 동물 포획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동물 포획권"이란 동물을 주인 없는 사물로 보며 포획된 동물의 소유 문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을 갖는 사냥권이 그 시기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의 발달은 초기의 사냥 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것은 포획된

동물의 소유권과 분배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공동 사냥으로 포획된 동물은 엄격한 규정에 의해 분배되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사냥을 생존의 주업으로 삼는 몇몇 부족에서 알 수 있다. 그 부족의 지배자나 성공적 사냥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갔다. 그러나 아마도 동물을 잡을 때 누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냥 도구에 소유 표시를 하므로써 쉽게 결정적 역할자를 찾아 낼 수 있었다.

또한 그 당시의 무리 사냥은 언어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냥 참가자와 언어적 소통 또는 신호 없이 무리 사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근원에 대하여 거의 알려진 것은 없지만 사냥의 필요성이 언어의 형성에 하나의 동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동굴이나 암벽의 동물 그림들은 안전한 사냥과 죽은 동물의 복수를 피하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며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991) 곰의 이빨을 매달은 목거리나 팔지 등이 최초의 장신구였으며 가죽이나 깃털 역시 같은 목적으로 쓰였다. 우리가 문화라고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 본질적으로 동물과 구별지을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은 바로 사냥꾼이었다. 그들은 동물과는 반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사냥에 의해 형성된 인류의 초기 문화는 신석기 시대에 끝나게 되었다.

2. 정착 시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사냥은 그 의미를 잃었다. 지금까지 식량의 근간을 이루었던 야생 동물의 자리를 급속도로 가축이 차지하게 되었다.

사냥에서 목축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그것으로

1) 부싯돌 : 석영(石英)의 한가지. 아주 단단하고 여러 가지 빛깔의 것이 있는데, 강철(鋼鐵)로 치면 섬화(閃火)가 잘 일어나므로 그 위에 부싯깃을 놓고,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데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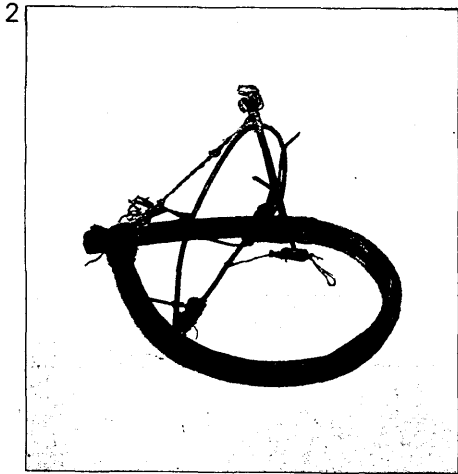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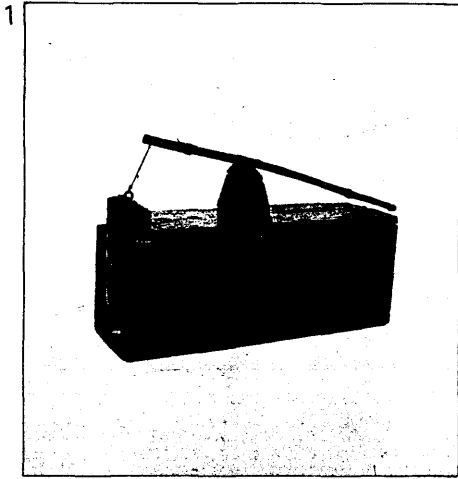


그림 5. 사냥 용구(1.통방이 2.창에 3.벼락틀)

인한 생활의 변화가 불과 도구를 발견한 것만큼 인류의 발달에 결정적인 진전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유적지에서 동물 뼈의 잔해를 통해 커다란 변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단지 야생 동물의 뼈만이 동굴 유적지 등에서 발견되었지만 정착 시기에 접어들면서 가축의 뼈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었다.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야생 동물의 뼈가 신석기 시대 말기에는 전체의 1-2%로 감소되었다. 이 수치는 인류 문화의 변화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시기는 또한 사냥 행위가 생존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유희의 수단으로도 행하여졌다. 기원전 4세기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역사가인 크세노폰(Xenopho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젊은이에게 사냥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사냥을 통해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냥의 교육적 특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후 2천년 동안, 정확히 말해서 18세기말까지, 여러 학자들 사이에 사냥과 윤리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사냥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사냥이 신체 단련, 용기, 민첩한 행동 등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냥은 국가적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사냥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강인하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냥은 도덕심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희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그 반면에 사냥에 대한 비판가들은 사냥은 야만적이며 지나치게 사냥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인간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냥 애호가나 사냥 비판가 모두 사냥에 대한 그들의 언급은 단지 인간과 국가 조직에 관계되는 것뿐이었지 결코 자연이나 환경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9세기 이전까지의 “자유로운 동물 포획권” 시대를 지나 18세기까지 사냥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서 행하여졌다. 이 당시의 사냥은 귀족층의 유희 활동이었으며 사냥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사냥에 참여하는 여러 귀족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냥 방법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말을 타고 하는 토끼 사냥, 여러 마리 개를 이용하는 몰이 사냥, 매사냥 등이 대표적 사냥 방법이었다(Klaus Böhme, 1991)

3. 동물을 동류로 보는 근세

근세에 접어들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며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인간은 진화론에 따라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서까지 생각하기도 했으며 이것은 잘못된 동물 애호로까지 왜곡되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생물학, 생태학 등 자연 과학이 크게 진보되었으며 사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야생 동물과 서식지 관리가 사냥 윤리와 더불어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 사냥(그림 6)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야생 동물 보호, 임업과 농업의 피해 예방, 스포츠 등의 역할을 한다.



그림 6. 현대 사냥 (제주도에서의 평사냥 모습)

Ⅲ. 사냥학이란 무엇인가?

K. Linder(1937)는 사냥이란 목적이 인식된

야생 동물의 포획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냥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독일어권의 나라에서 “Müller는 사냥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Müller는 사냥꾼이다.”라는 의미이며 “독일의 사냥”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사냥 경제, 사냥 수확, 사냥 방법 등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냥의 의미는 야생 동물의 관리와 이용을 포함한다(Fritz Nüßlein, 1990).

사냥학이란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사냥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냥학은 20세기초에 독일에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발달되었다. 그러나 사냥학이란 개념은 이미 18세기 초, 1719년에 한스 프리드리히 폰 플레밍(Hanns Friedrich von Fleming)이 저술한 “Der Vollkommene Teutcher Jäger”라는 사냥 고전에서 소제목으로서 사냥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Erhard Ueckermann, 1994). 사냥은 독일어 문화권 뿐 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의 역사에 포괄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고유한 전문 영역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사냥학은 사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사냥 동물(사냥이 법적으로 허가된 동물)과 그 동물들의 서식지에 관한 지식이 사냥학의 자연 과학적 목표이며, 또한 사냥의 법적, 역사적, 정책적, 경제적인 면에서의 사회 과학적인 분야까지 사냥학은 그 범위를 넓여 가고 있다(D. Stahl und H. Bibelriether, 1971). 1911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올리우스 노이만(Julius Neumann)이라는 출판업자에 의해 사냥연구소(Jagdkundeinstitut)가 설립되었다. 1939년 이 연구소에서 발행한 간행물에서 발터 릭 박사(Dr. Walter Rieck)는 사냥학이란 응용 학문으로서 기초과학 및 그 연관 학문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특별한 목적에 맞게 개량하는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각각의 연구 분야를 촉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전문 학술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간은 야생 동물 특히 야생 동물의 환경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 영향력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1936년 임업 대학인 Forstlichen Hochschule Hannoversch Münden에 사냥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사냥의 다양한分野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 야생 동물학

야생 동물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동물학적으로 각각의 종과 개체를 동물계의 분류 체계 속에서 다루며 둘째, 생물학적으로 각각의 동물들의 생태와 생리 그리고 다른 종들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셋째, 생태학적으로 야생 동물을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주변 환경의 영향과의 상호 작용 등을 다룬다.

2. 야생 동물 병리학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병은 생태계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야생 동물의 병은 인간이나 가축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병, 먹이 관계로 생기는 병 그리고 독극물과 사고로 인한 야생 동물의 상태에 관한 것 등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다.

3. 야생 동물 밀도 관리

야생 동물의 밀도 관리는 야생 동물의 건강과 생태를 안전하게 하며 적절한 야생 동물의 밀도를 추정하고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서의 밀도를 유지시키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진다. 적절한 야생 동물의 밀도 유지는 계획적 야생 동물의 포획과 서식지 보호 등을 통한 야생 동물의 관리는 야생 동물을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기술적, 생물학적 수단을 포함한 사냥 경영

사냥 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사냥 활동을 말하며 사냥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경영과 관리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5. 야생 동물 보호와 이용

야생 동물에게 적절한 서식지를 제공하므로서 다양하고 건강한 야생 동물의 보호가 이루어지며 특히, 야생 동물의 은신처와 겨울철 먹이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야생 동물의 이용은 사냥 경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6. 야생 동물 피해의 원인과 예방

야생 동물은 농업이나 임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식성 동물들이 경작지에서 그들의 먹이를 얻으려고 할 때, 사슴류가 빨가리할 때 그 피해를 예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과 예방의 연구가 필요하다.

7. 자연 보호를 고려한 사냥 정책과 사냥법

8. 사냥 역사, 사냥 관습, 사냥 문화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사냥의 실제와 이론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Dietrich Stahl und H. Bibelriether, 1971)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냥학이란 사냥 활동을 통해 인간과 야생 동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IV. 結 論

우리나라 산림은 전 국토의 65%인 645만ha(임업통계요람, 1995)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임업의 대상이며 제1차 산업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다. 또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산림이 갖는 환경 친화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며 중요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산림은 산림 소유자의 소득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과 일반 대중의 정서 고양을 위한 경관으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산림은 인간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공간이다. 최근에 산림 소득 증대의 한 방편으로서 야생 동물의 자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야생 동물 자원화의 추진 이전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될 것은, 야생 동물은 산림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인식이다. 야생 동물의 자원화는 실질적으로 사냥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사냥에 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올바른 야생 동물 관리 및 보호를 실현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사냥 문화의 발달 과정에서 보았듯이 사냥은 인간의 독특한 활동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야생 동물의 관리와 서식지 보호 및 사냥 윤리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사냥은 단지 야생 동물의 포획 활동이 아니라 생태적,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 인간 고유의 활동인 것이다. 또한 그 책임감이 바로 올바른 사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최근의 경제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사냥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사냥 문화의 정립 없이 "상설 수렵장"의 설립 등으로 늘어나는 사냥 수요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는 새로운 사냥 문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 나라에서 성급한 사냥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냥 윤리란 사냥이 사냥꾼과 동물의 게임이라고 할 때 사냥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다. 퇴로가 없는 사냥 동물을 총으로 쏜다는 것은 도살이며 사냥꾼의 수치이다.

사냥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냥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사냥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사냥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 것이다.

引用 文 獻

1. 경남 개발 연구원. 1994. 상설 유료 수렵장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입지 선정. 1pp
2. 김성일, 최윤환. 1993. 수렵 참여 실태 및 수렵인 특성에 관한 조사. 임업경제, 창간호. 35~44pp
3.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1991. 502pp
4. 이희승. 1994. 국어 대사전. 민중서림. 서울. 1337pp
5. 자연과 사냥. 1997. 자연과 사냥사. 428pp
6. Dietrich Stahl, Hans Bibelriether. 1971. Jagd in Deutschland, Wild und Jäger in Industrieland. Verlag Paul Parey. Hamburg und Berlin. 72~78pp
7. Erhard Ueckermann. 1994. Kulturgut Jagd, Ein Führer durch die Jagdgeschichte Nordrhein-Westfalens und zu jagdhistorischen Stätten, Landwirtschaftsverlag GmbH. Münster-Hiltrup. 115~119pp
8. Fritz Nüßlein. 1990. Das praktische Handbuch der Jagdkunde. BLV Verlagsgesellschaft mbH. München. 10~20pp
9. Jagd Lexikon. 1994. BLV Verlagsgesellschaft.. München. 419~422pp
10. Klaus Böhme. 1991. Illustrierte Jagdgeschichte. Vom Steinwurf des Vormenschen zum Waidwerk der Antike. Melsungen. 149-151pp
11. S. Schwenk. 1991. Jagd als Kulturelles Phänomen. Z. Jagdwiss. Verlag Paul Parey. Hamburg und Berlin. 37 : 258~266pp